

수입되는 육가공제품과 원료돈육의 역관세 조정 건의

건의처 : 보건복지부 식품유통과

1. 식품유통개선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귀 부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 육가공업계는 1987년에 수입자유화된 캔제품을 위시하여 소시지 베이컨 제품이 수입자유화됨으로써 국내보다 매우 값싼 원료를 바탕으로 한 저가의 수입육가공제품이 매년 수입량이 증가되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3. 값싼 수입 육가공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반면 원료육인 국내돼지 가격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돈가를 형성하여 외국산보다 약 2배 비싸나(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으나 년 평균치)원료인 돈육수입은 정부에서 수급조정하고 있어서 이 고가인 원료돈육으로 제품화시 제조원가 상승은 당연하며 다년간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4. 일본의 경우는 1967년부터 돈육의 Quota수입이 활성화된 이후 1971년도에 가공 원료육에 한하여 돈육수입을 완전 자유화시킨 이후 햄, 베이컨 등 육가공제품을 1972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유화시켰기 때문에 육가공제품의 수입자유화 조치에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원료육이 개방되기 전에 육가공 제품

이 먼저 수입자유화되었기에 이로 인한 외국업체들의 값싼 원료육을 사용한 육가공 완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 가공업체들은 국제경쟁은 고사하고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5. 거기에다 수입자유화된 육가공제품의 수입관세율은(소시지의 경우 28.8%) 낮고 수입자유화될 냉동돈육의 수입관세율은 35.8%로서 형평에 맞지 않는 관세율 적용인바 원료육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현행 수입 육가공제품과 원료냉동 돈육의 역관세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제1안 : 현행 원료용 냉동돈육의 수입관세 35.8%를 수입제품인 소시지 수입관세율인 28.8%로 하향적용

제2안 : 모든 수입자유화된 육가공제품 수입 관세율(소시지 28.8%)를 '97년에 개방될 원료 냉동돈육 수입관세율인 35.8%로 상향적용

별첨 : 한국육가공업체의 현안문제

별첨

한국육가공업체의 현안문제

1. 육가공 원료육인 돈육가격의 현황

가. 국내 원료돈육가는 외국에 비해 약 2배 고가이며 원료육 수입은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다.

1) 국내지육가 및 연도별 상승율과 제품원가에 미치는 영향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분기별 평균				
							1/4	2/4	3/4	95.11	평균
지육가(W/kg)	1648	2574	2697	2033	2151	2373	2394	2604	2288	1875	2290
지 수	100	156	164	123	130	144	145	158	139	114	139
제품원가영향(%)	-	33.8↑	38.3↑	26.7↑	18.0↑	25.8↑	31.4↑	34.2↑	30.1↑	24.7↑	30.1↑

2) 돈육가격 경쟁력 비교(생돈kg당 단가)

	'89	'92	'94	'94 생돈가 기준 비교지수	연평균증가율
한 국	1,089	1,353	1,555	100%	7.4%
미 국	640(0.95U\$)	713(0.91U\$)	710(0.88U\$)	46%	-1.5%
덴마크	899(9.7DKR)	1,098(8.4DKR)	832(6.6DKR)	54%	-7.4%

나. 국내 원료돈가의 경우 '89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연평균 7.4%씩 계속 원가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해외 원료가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여 국내제품의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2. 수입자유화된 육가공품의 국내유통

가. 육가공제품은 수입자유화되어 국내제품가격의 반값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이 '96년부터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1) 현행관세를 소시지 28.8%, 캔 30% 하에서의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의 소비자가격 비교

(원/EA)

구 분	배 이 컨	캔	소시지	비 고
수 입 품	5,000/kg	1,200/340g	1,300/460g	
국 산 품	8,300/kg	2,200/340g	2,400/460g	
비 율	60%	55%	54%	

나. 수입 자유화된 육가공 제품의 수입량

(수입량 : M/T, 관세율 : %)

구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9	비고	
소시지	국내판매량	7748	15068	20107	27054	32549	34905	34205	34457	25787	시장점유율 변동에 대한 설명- 다음 다, 라, 마항 참조 95.1부터 국제협력관세 적용 30%→28.8%
	수입량				957	2390	3025	3821	1951	1964	
	시장점유율				3.4%	6.8%	8.0%	10.0%	5.3%	7.1%	
	기본관세율				30%	30%	30%	30%	30%	28.8%	
캔	국내판매량	3301	4171	4588	6581	8447	9810	9047	13176	10325	
	수입량	564	1581	2978	2561	1783	2240	2185	2302	2388	
	시장점유율	14.6%	27.5%	39.4%	28.0%	17.4%	18.6%	19.5%	14.9%	18.8%	
	기본관세율	30%	30%	30%	90.5~91.6 50%	91.7~93.6 40%	93.7~94.12 30%			30%	
베이컨	기본관세율							30%	30%	94.1부터 자유화	

다. 수입자유화된 소시지제품은 국내 유통기한의 30일로 적용하는 정부의 규제에 의거 '94년에 수입된 일부가 반송됨으로써 '95년 전반기까지는 냉동소시지 제품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상태였으나 한미 통상협상에 의해 '95 하반기에 유통기한이 90일로 연장됨으로써 '95년 말경 또는 '96년부터는 값싼 냉동소시지 및 베이컨의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서 국내 유통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라. 통조림의 경우 개방된 '87년에 15%, 88년에 28%, 89년에 40%로 급격히 국내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산업피해구제를 제소하여 긴급관세율 30%에서 50%로 인상적용한 바,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7%가 하락했었다. 그 후 또 수입관세율을 40%로 환원하고서 '93년 7월부터는 수입관세율이 30%로 완전환원됨으로써 '96년부터 당초대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국내시장이 50% 이상 점유될 전망이다.

마. 소시지의 수입은 '95년 9월까지 미국에서 수입전체 물량의 98.8%를 수입하였고 통조림의 경우 미국에서 40.1%, 덴마크에서 42.8%를 수입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덴마크의 돈지육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46~54%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1) '95.9월까지 육가공제품 수입국 현황

(단위 : 톤)

	국별	미국	호주	캐나다	헝가리	독일	합계
소시지	수입량	1,941	10.5	13	0.3	0.106	1,964
	비율(%)	98.8%	0.53%	0.66%	0.02%	0.005%	100%
	국별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중국	독일	합계
통조림	수입량	957.1	1,023	234.4	173.3	0.225	2,388
	비율(%)	40.1%	42.8%	9.82%	7.2%	0.009%	100%

3. 원료돈육과 육가공제품과의 역관세 제도

가. 원료인 냉동돈육의 수입관세가 가공완제품의 관세보다 높은 현행의 관세구조는 관세율 운용의 기본정신에 맞춰 조정되어야 함.

품 목	수입냉동돈육	소시지	돈육 통조림	베이컨	햄('97년 수입자유화 예정)
'95 관세율	35.8%	28.8%	30%	30%	30%

4. 육가공산업과 양돈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참고사항

가.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 및 제제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였으나 긴급관세의 해제 및 냉동식품, 냉장육의 유통기한 연장 등 일련의 국제화 정세에 따라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염가인 수입육가공품이 홍수처럼 수입될 것인바 국내육가공 업체들은 제품을 제조하여 국제경쟁할 수도 없어 차라리 외국산 가공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회사운영이 될 것이다.

나.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염가이며, 질이 좋고 이용에 간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돈육을 원료로 한 육가공품의 소비현황을 보면 미국이 70%, 일본이 40%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94년 약 11.5%로서 육가공업체의 존재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앞으로 일본과 같이 30~40% 이상 육가공품을 소비한다면 양돈가들이 생산한 돈육 판매는 육가공업체가 최고의 고객이며 이들 업체가 없으면 판로가 없게 될 것이다.

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육가공업체들의 현주소가 불분명하게 될 시에는 양돈가가 생산한 돈육은 판로가 없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육가공업체가 도산하면 양돈가도 판로가 없어 양돈산업도 같이 도산하게 되는 공존공생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